# 13만→22만t 증설… 하수처리장 현대화 본격

## 도, 27일 기본계획 고시… 총사업비 3886억원 투입
## 시설 완전 지하화·지상 공원화 등 2025년 12월 완공

제주도내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하수처리난 해소와 청정 환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확정돼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886억원(국비1865억·지방비 1865억·원인자부담 156억원)을 투입해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지상의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하수처리장은 도내 60%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지난 1993년 최초 준공된 이후 25년이 경과됐으며 이주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증설 및 개량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시설 용량의 과부하로 악취발생,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하수처리시설 조기 확충이 요구돼 왔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 원인자 부담금 156억원을 제외한 총 재정투자액의 50%를 지원받게 됐다. 지난 9월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올해 말까지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입찰방법 심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략환경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도 추진된다.

제주도는 현대화 사업 완공후 안정적인 하수처리는 물론, 연안 오염 예방 및 개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에는 주민친화시설인 공원화를 통해 지역주민 편익 시설 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계획고시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과 함께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마련되는만큼 이후 업체 선정 등 사업 발주에 따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 105개 마을 주민이 펼친 서귀포칠십리축제 성황

'105개 마을이 함께하는 와랑와랑 서귀포!'를 주제로 내건 제25회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지난 27~29일 사흘간 섶섬과 문섬 등 해안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자구리공원 일대에서 펼쳐졌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양광순)가 주관한 축제는 올해 사반세기를 맞은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2월 발표할 법정문화도시에 도전중인 시점에 열려 문화도시 서귀포시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는데 더욱 공을 들였다.

축제는 26일 축제의 성공과 방문객들의 무병장수를 지원하는 전야행사인 '남극노인성제'를 시작으로, 첫날인 27일은 축제의 상징인 '칠십리 퍼레이드'가 원도심에서 자구리공원 행사장까지 1.4㎞를 구간에서 펼쳐져 17개 읍면동 주민들이 각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알렸다. 퍼레이드 초반 간간이 내리던 비는 중반을 넘기며 빗줄기가 굵어졌지만 각 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자원 상징물을 직접 제작하고 퍼레이드에도 참여한 2000여명의 남녀노소 참가자들은 끝까지 행진했고, 관람객들도 우산을 들고 퍼레이드를 즐겼다. 특히 올해는 17개 읍면동 외에 전국공모로 일반 참가자들도 참여해 축제의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제25회 서귀포칠십리축제 둘째날인 28일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일대에 마련된 주무대에서 서귀포 9개 읍면동의 마당놀이가 펼쳐졌다. 이상국기자

칠십리 퍼레이드 최우수상은 대륜동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남원읍·중문동·천지동·예래동, 장려상은 안덕면·효돈동·서홍동·정방동·동홍동·대천동이 각각 받았다.

28~29일은 화창한 날씨속에서 서귀포 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마을마당놀이'와 제주어말하기 대회, 지역문화동아리 경연, 해순이와 섬돌이 선발대회, 칠십리가요제가 열렸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이호 오도2지구 주거환경개선 추진

### 셉테드·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주시가 10월부터 이호오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호오도2지구는 지난 2018년 5월에 신규 지구로 선정됐고 이후 같은해 6월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올해 4월과 5월 도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이행한 후 7월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제주시는 10월부터 사업시행계획(실시설계인가) 고시 및 토지 등 보상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셉테드 및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계획도로(3개 노선, L=382m, B=8~10m) 개설공사 및 CCTV 가로등 등을 포함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까지 총 26억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투입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제주대병원, 5년간 의료사고 소송 40건

제주대병원의 최근 5년간 의료사고 소송 건수가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국립대학 병원별 의료사고 소송은 총 247건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 49건 ▷부산대병원 48건 ▷제주대병원 40건 ▷전남대병원 32건 ▷경북대병원 28건 ▷충남대병원 21건 ▷전북대병원 18건 ▷강원대병원 9건 ▷충북대병원 2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조정신청'은 총 549건으로, ▷부산대병원 154건 ▷서울대병원 115건 ▷전남대병원 78건 ▷충남대병원 52건 ▷충북대병원 44건 ▷경북대병원 38건 ▷제주대병원 32건 ▷강원대병원 22건 ▷전북대병원 14건 순이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2019 제주愛 빠지다** ⑱ 민·관이 함께하는 '사랑의 집'

안덕면 사랑의 집 3호점 입주식. 사진=안덕면 제공

## "빈집 고쳐 어려운 이웃 보금자리로"

### 정정일 목사, 아내 고향 정착
### 집짓기 프로젝트로 재능기부
### 리모델링 추진해 3호집 완성
### "이웃 위한 봉사 이어갈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이주민과 선주민의 구분은 없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얼마나 공감해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동원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임하고 있는 정정일(63) 목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금 지원만 이뤄지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실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 목사는 1986년부터 약 30년간 서울, 부산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한 인물이다. 은퇴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배우자의 고향에서 자신의 장기인 '집 수리' 솜씨를 발휘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결심하고 2016년 제주에 정착했다.

정착 이후 정 목사는 '방주사회복지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취임해 다양한 활동에 돌입했다.

정 목사의 활동 가운데 '빈집 활용, 좋은이웃,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행정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약을 맺고, 농촌지역 폐가나 빈집을 개·보수해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 목사는 이 프로젝트에서 리모델링 추진 및 시설 개·보수 등 전반에 걸친 책임을 맡아 벌써 3호집까지 완성한 상태다.

이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 전기공사를 비롯해 좌변기 및 손잡이 설치, 방충망·지붕공사 등 200여 가구에 달하는 주택은 물론 복지회관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재능기부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 서부분관과 연계해 안덕면 관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인 20가구를 위한 가사도우미를 파견, 반찬조리, 청소 등의 봉사를 전개하고 있다. 제주신학교의 협조로 매주 월요일마다 서귀포시 관내(안덕면, 대정읍) 어려운 이웃 60여 가정을 위해 푸짐한 양의 반찬을 만들어 배달했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정 목사는 지난 7월 서귀포동원교회의 청빙을 받고 방주사회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자리를 사임하고 목회활동을 재개했다. 서귀포동원교회에서 새로운 봉사단체를 만들어 다시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목사는 "아내가 제주 출신이라 처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편견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다"며 "행정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불편을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찾아오시는 길 |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7-6 김녕해수욕장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개최를 축하합니다.

2019년 제주도세계지질공원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Gimnyeong·Woljeong Geotrail

2019. 10. 3(목) ~ 10. 6(일) (4일간)

장 소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 월정리 일대
문 의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위원회 T. 064)750-2523, 2291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주 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트레일위원회
후 원 국립공원공단 | 대한지질학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관광공사
참여기관 구좌읍사무소 | 구좌읍이장단협의회 |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 | 김녕리 | 월정리 | 한라일보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오설록농장 ☎ 794-6491

세상을 밝고 넓게 보는 창! 제주NIE학회
제11기 신입회원 모집

제주NIE학회는 신문활용교육과 미디어교육을 하는 비영리 연구단체입니다. 본 학회에서는 뜻을 함께 할 제 11기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도내 거주자 중 NIE 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접수기간 2019년 9월30일(월)~ 10월5일(토)
신청방법 제주NIE학회 (http://cafe.daum.net/niejeju)
문 의 010-4369-3011 (학회장)

제주NIE학회

제주어 큰잔치에 초대합니다

가문잔칫날 제주어 연극공연과 노래 경연, 제주어 알아맞히기, 삼행시 짓기와 하객들에게는 잔치국수와 돗궤기 석 점을 제공하는 제주어 큰잔치에 초청합니다

일 시 | 2019. 10. 12.(토) 11:30 ~ 15:00
장 소 | 탐라문화제 행사장 삼지천공원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 제주어보전회
○ 후원 : 탐라문화제축제위원회

1. 길트기 : 풍물패(11:30 ~)
2. 연극공연 : 가문잔치 극(11:50 ~ )
3. 노래 부르기 : 제주어 노래 또는 개사 작품(12:30 ~ )
4. 만담 : 1인 또는 2인(13:10 ~ )
5. 제주어 알아맞히기 : 현장접수 (13:30 ~ )
6. 삼행시 : 현장접수 (11:30 ~ )
7. 제주어 쓰기 : 뱃지 만들기 (11:30 ~ )

· 노래/만담 참여자는 10월 10일 까지 사전 접수 (723-2495)
· 프로그램 참여자 전원 소정의 상품 제공
· 참여자 및 일반 하객들에게 잔치국수와 돗궤기 석 점 제공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이사장 김정민